

뇌장에

흡수된 영양물은 어디로 가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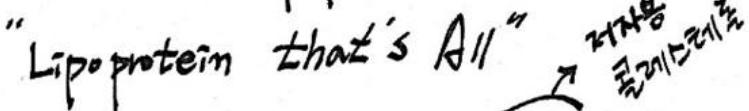
"우선 어디를 가지?" 맘을 잘 맷어야
공부가 단단해 진다.

뇌장에서 혈세(血液)으로 풍맥을 타고 심장을
간다. 그리고 간으로 간다. 간으로 가는 정맥은
영양물이 가장 많다. 간으로 가는 풍맥은
산소가 가장 많다.

영양분과 싱싱한 산소가 간으로 간다.
평균 성인 남자의 간의 크기는 1.3 kg 이다.
Brain의 크기와 비슷하다. 가장 큰
장기이다.

간은 매우 Unique하다. 느낌을
말하면 질퍽하다. 식욕과 관계된
간을 살펴보기로 하자.

오늘은 주제는 "lipoprotein"이다.

"Lipoprotein that's All" 

HDL이라는 트리그리지에 콜레스테롤이 에스터로
되어 들어 있다. 말하자면 냄은 영양물을
HDL을 통해 간으로 뺏는다. 간에서 영양물이
빼지면 LDL이 나온다.

→ 60조개의 세포는 콜레스테롤을
만들기도 하고, 외부에서 받아들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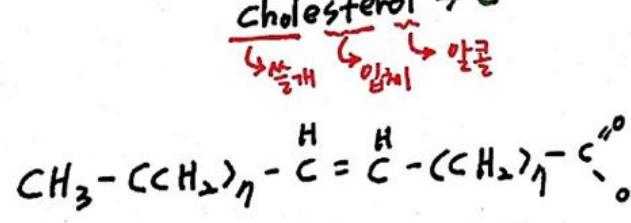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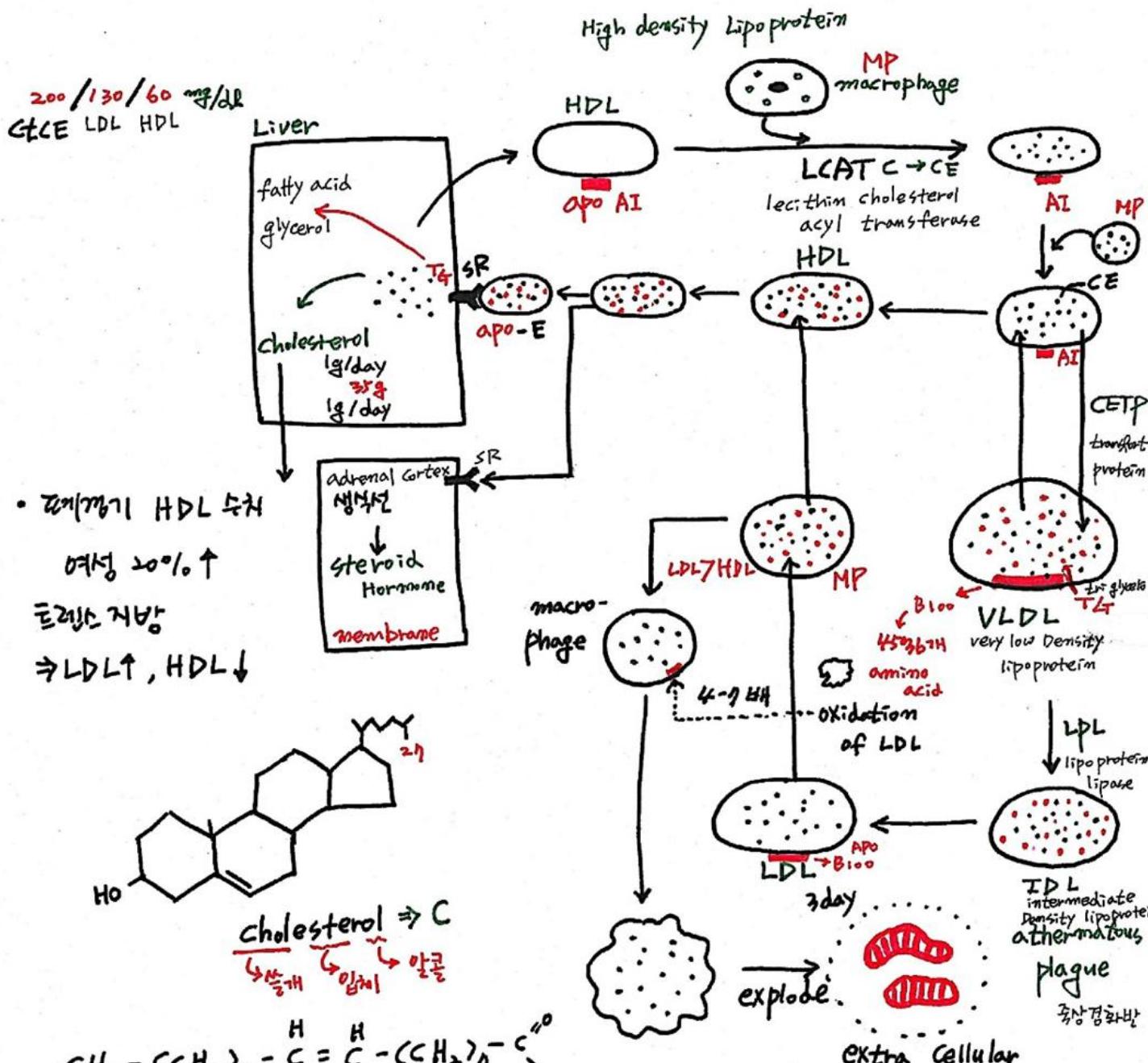
증증에
10분~1시간
↑ 지속

간에서 막나운 지질을 VLDL이다.
이 안에는 중성지질이 가득하다.
간이 하는 혈액 기능이 200가지가
넘는다.

CETP 및 TG가 들어 있는
VLDL은 다시 HDL로 들어간다.

LDL에서 콜레스테롤은 3% 이상
있을 수 있다. 이 "CE"는 산화된다.
산화된 CE는 대식세포(Mφ)가
잡아 먹어 흡수된다. Mφ가 지속적
CE의 산화상태가 증가하면
HDL보다 LDL이 증가한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혈관에서의
일이다. 산화된 CE는 뿐만 아니라
foam cell이 생기고, 드디어
터지기 (explode) 한다.

결국 세포안에 지질만 남겨 둘어
혈관에 달라붙어 혈관을 막는다.
혈관벽에 떡처럼 달라붙기
되는 현상이다. 축상(蓄想)반으로
심근경색, 뇌경색의 원인이 되고,



Cholesterol ester \Rightarrow CE
스테로이드

콜레스테롤 \rightarrow 미로막, 호르몬, 쓸개즙
기능
유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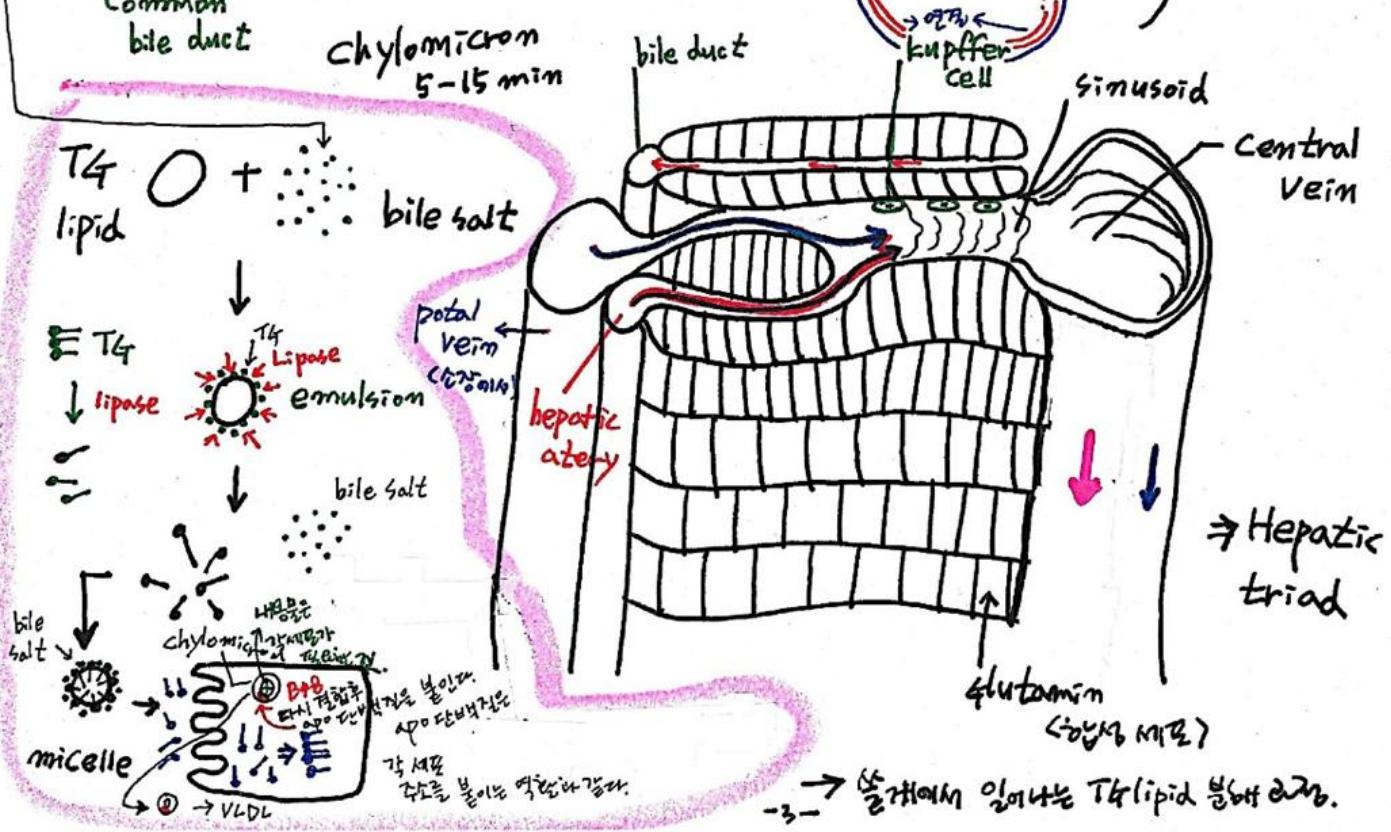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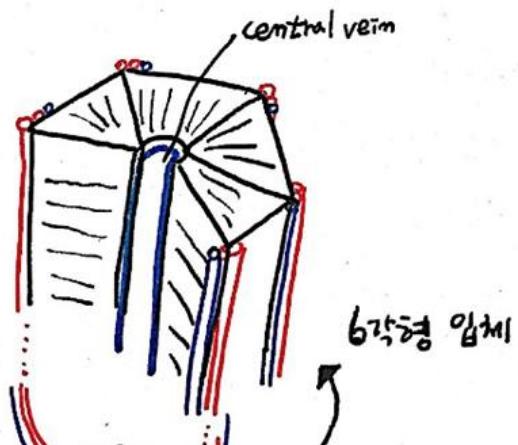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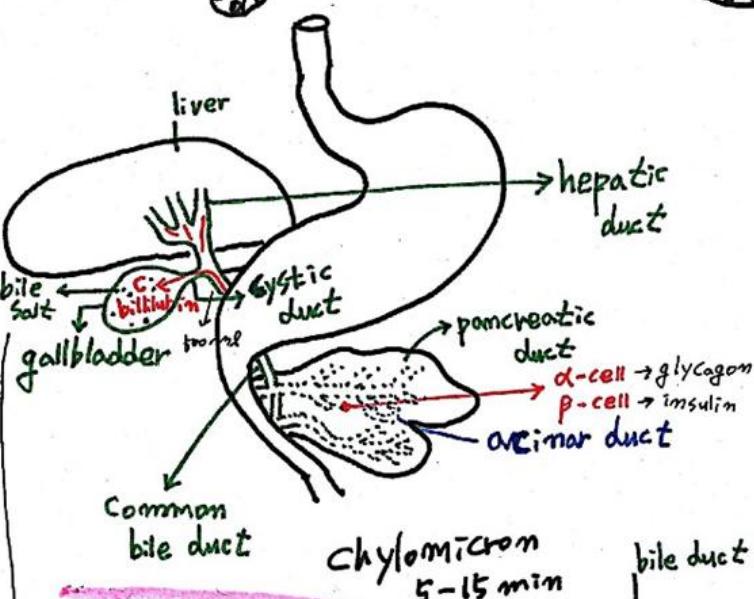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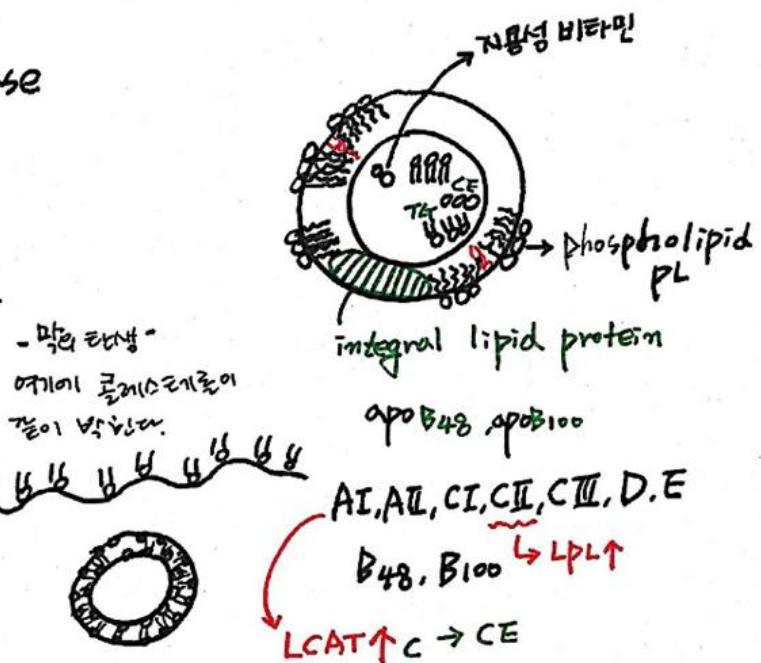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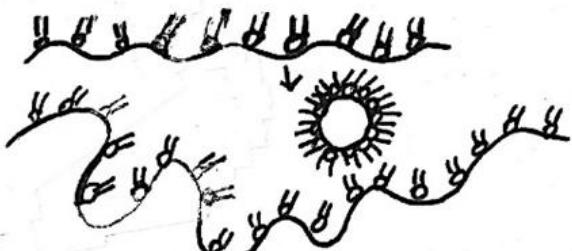
HDL을 높여 좋다.

LDL을 낮춰 좋다.

Chylomicron system < 소장에서 tri-glycerol + bile salt
micelle \rightarrow 흡수

지방흡수가 증가되는 체계
Chylomicron system

amylase, protease, lipase



제이거나 이전의 여자는 남자에 비해

HDL이 20% 높다. 노화가 늦고 임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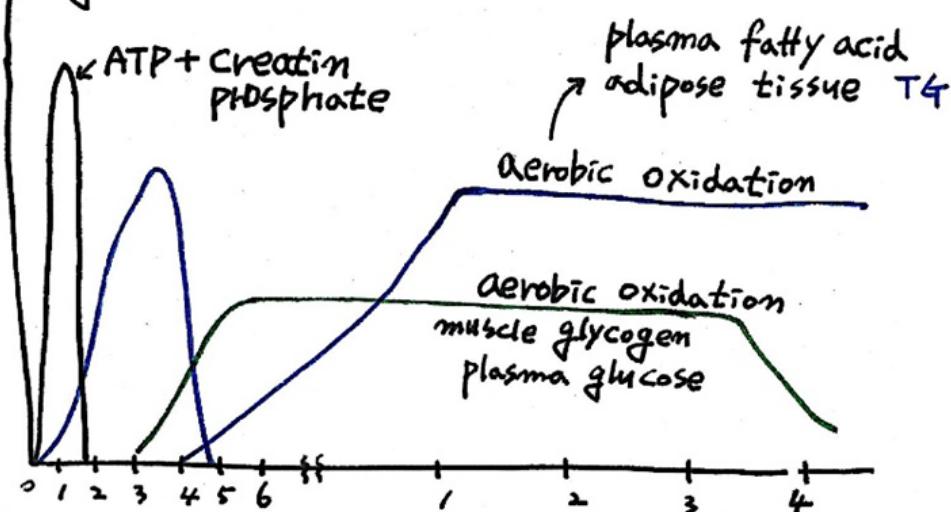
하기 위한 조건을 놓여주기 된다.

콜레스테롤 → 세포막, 호르몬, 쓸개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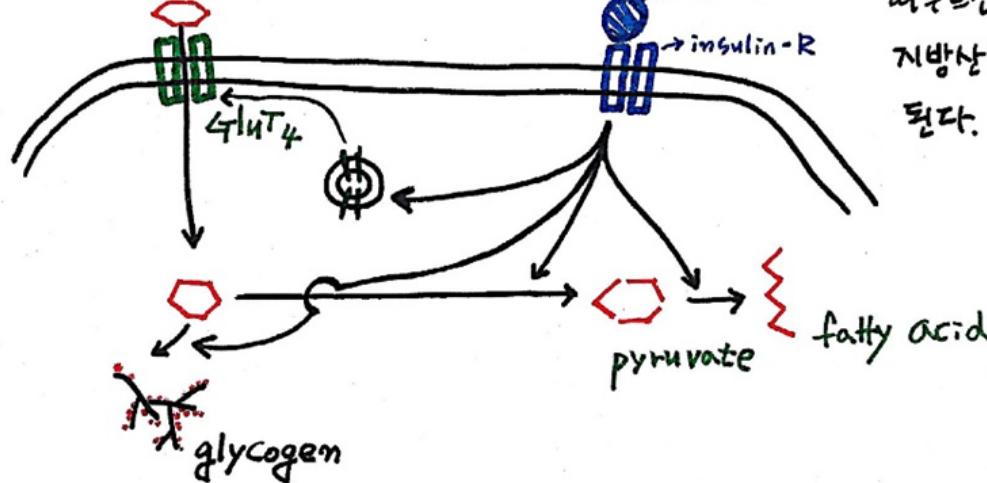


유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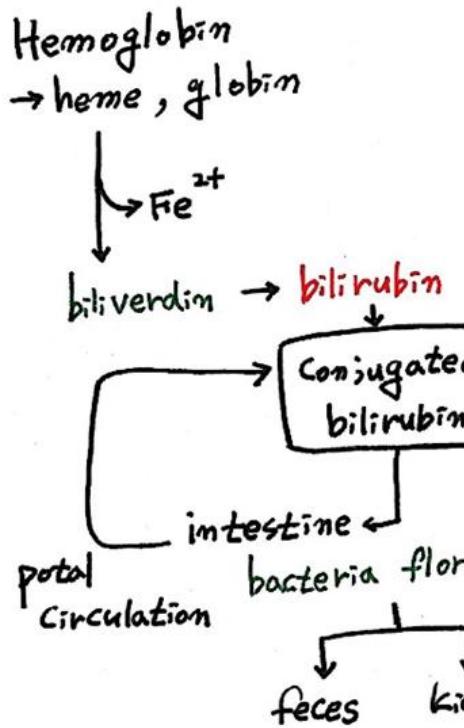
energy sour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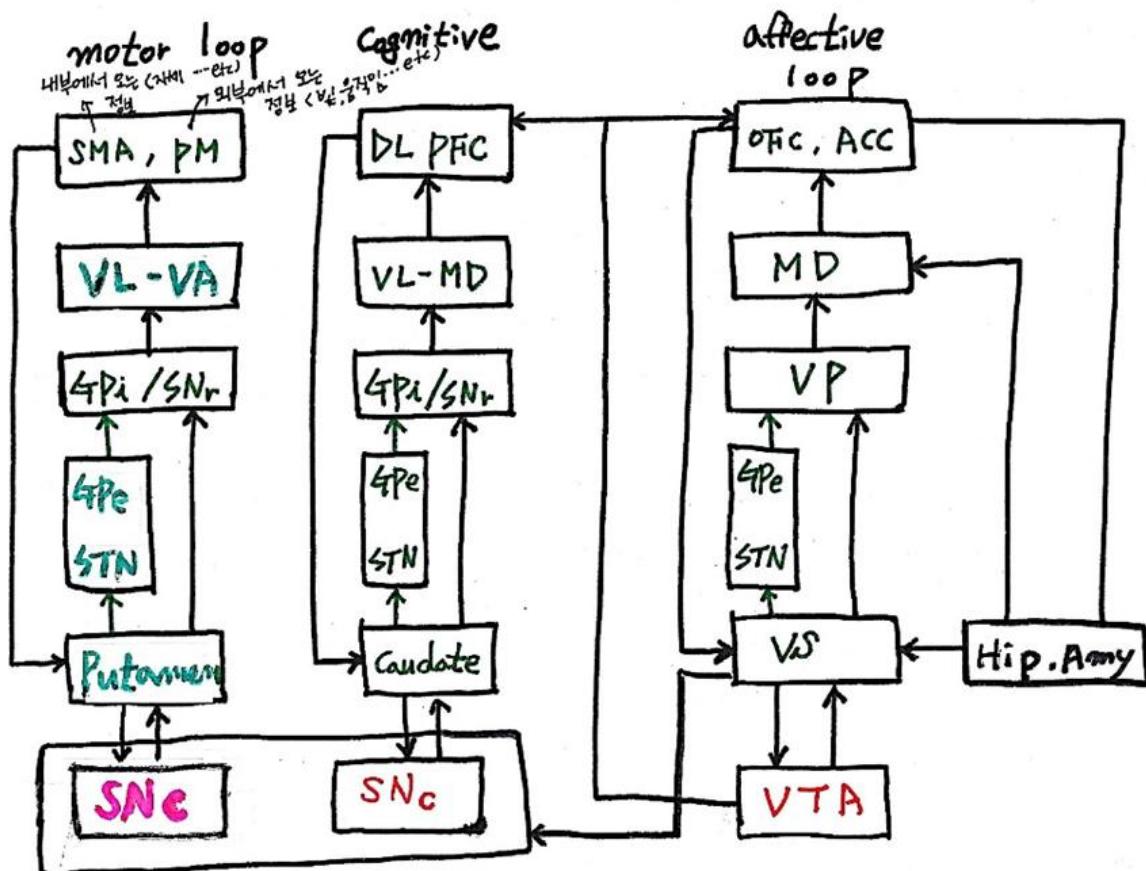
INN 이상
운동을 해야
지방이
바뀐다.



혈당 낮 부자가
피부색도
지방사도
된다.



적혈구가 자라면서
heme과 globin으로
나누워지고,
철(Fe²⁺)가 빠져나가
biliverdin이 되고
bilirubin이 되어 간에
들어간다.
그리고 심장이 징후로
빠져 나가 흡수된다.
그리고 심장을 거쳐
오줌으로 빠져 나간다.



자크 라캉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나의 욕망이 존재하는게 아니라
타인의 욕망이 내게 욕망된다.

타인의 기준은 수십 만명의
얼굴을 합치면 타인의 얼굴이
나온다.
부분 집합의 합이다.

"타인의 욕망"을 욕망 > 문화

"타인의 풍정" 속에 산다.

= "mind in society"

"문방 불능"

Brain은 외부세계의 그림자이다.

결국 나는 업다.

「아무것도 아닌 표제로 와서
무언가가 드리기 위해서
발버둥치다 아무것도 아닌 표제로
돌아간다.」 토마스 베체거.